

프로야구

Relay Interview



이영찬이
이영찬에게 묻다

마무리 투수로 올라와서
역전 만루포 맞은 기분은?

“투수가 홈런 한방 맞은것 같고 뭐...”

애플타이저



●양현종이 이영찬에게= 용찬아, 너를 눈여겨본 것은 고3 때였던 것 같다. 2006년 4월 대통령배 결승이었지. 너희 학교(장충고)와 우리 학교(광주 동성고)의 대결이었잖아. 당시 좌완에서는 나와 (김)광현(SK)이가, 우완에서는 너랑 정영일(LA 에인절스)이 유망주로 꼽혔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6회에 구원을 나온 네가 9회까지 무실점으로 막고, 우승 세리머니를 하는 장면들... 그때는 참 부럽기도 하고 썰나고 그랬단다. (장충고는 2-0으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고, 이영찬은 MVP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가 친해진 계기는 그해 9월 쿠바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청소년선수권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봐도 그때 멤버는 정말 화려한 것 같다. 너랑 나랑 (임)태훈(두산)이, (김)광현이... 우승하고 좋아했던 것 너도 기억하지? 프로 와서도 난 네가 너무 부러웠다. 한 팀에 동기(임태훈)가 있다는 것이 말이야. 그래서 두산과 경기 할 때면 너희 둘 보러 두산 타아웃에 가기도 했잖아. 어제(5월 21일) 너랑 통화할 때 너무 심한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준비한 질문이 좀 독해서 걱정이야.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다 이해해 줄 거지?(5월 22일 광주구장)



●이영찬이 양현종에게= 네가 쓸쓸하다고 하나까 하는 말이야. 우리 팀으로 와라(웃음). 우리 팀 오면, 네가 질문했던 것 있지? 내가 네 승리 안 날리게 뭇뚱 다 막아줄게. (김)선우 선배님처럼 가끔 “용찬아, 형 것 말면 (블론세이브 하면) 타아웃 들어오지 마”라고 농담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네. 웃도 안 갈아 입고 외야로 곧장 나가버릴게요”라고 대답하거든? 내가 네 것 말면 바로 외야로 나갈게. 하하. 농담이고, 난 개인적으로 우리 동지들이 프로야구판을 휘어잡았으면 좋겠어. 너도 그렇고, (임)태훈이도 그렇고, (김)광현이, 롯데 (이)재환이, (이)상화, 한화 (김)강이, 우리 팀 (이)두환이... 우리 연말 청대(제22회 청소년대표팀) 모임도 계속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현종이 너 어제(5월 27일) 8승 땀 더러, 씩씩하게 던지는 것 같아 보기 좋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아지나? 나중에 가르쳐주라. 앞으로 광저우아시아게임이 있는데 너나 나나 태훈이나 예비엔트리에 뽑혔잖아. 다 함께 가서 예전처럼 금메달 목에 걸자. (5월 28일 잠실구장) 한편 이영찬은 다음 릴레이인터뷰 상대로 넥센 강윤규를 지목했다.

-너한테는 아픈 기억이지만 TV 중계 하이라이트 등에서 네가 페타지니(전 LG)에게 만루홈런 맞은 장면이 자주 나오더라. (이영찬은 2009년 4월 10일 잠실 LG전에서 페타지니에게 프로 통산 3번째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허용했다)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니? “나이스 배팅이었다고 생각하지. 그때도 홈런 맞고 별로 괜찮았는데... 그냥 담담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 홈런 맞아도 ‘뭐, 다음에 잘 던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 그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볼 카운트(1-2) 싸움을 제대로 못해서 유리하게 못잡고 갔던 것, 그거 하나. 반성되지.”

-나도 신인 때 꿈이 마무리 투수였어. 결국 마무리 투수가 경기를 끝내고 대미를 장식하는 거잖아. 멋있어 보였거든. 마무리로 나갈 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게 궁금하다.

“뭐가 따로 있겠나. ‘무조건 막아야지, 막아야지’ 생각하고 올라가지. 속으로 ‘집중하자’고 계속 주문을 걸어. 그리고 마무리라는 보직이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더 집중이 잘 되고, 마운드에 올라가서는 ‘첫 타자만 잡자!’고 생각해. 난 대개 1점차나 2점차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올라가니까 첫 타자 잡으면 편하게 갈 수 있거든. 올해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거는 불넷 없어진 거다. 차라리 안타를 맞아도 불넷은 안 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마무리 투수는 세리머니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너 조용한 성격이잖아. 경기를 끝내고도 모자 벗고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게 다야. 좀 멋있지 않나? “현종이가 아직도 날 잘 모르네. 나 그렇게 조용한 성격이 아닌데... (웃음) 세리머니? 뭐 할 게 있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흥분된 상태에서 어떤 제스처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SK 경기 보니까 이승호 선배님이 세이브 하고 박경완 선배님하고 마운드에 올라와서 악수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 그거 괜찮은 것 같다.”

-난 마무리인데 혹사라도 (임)태훈이처럼 친한 친구의 승리를 지켜주는 거랑, 용병 투수들의 뒤에서 던질 때 마음가짐이 다른 게 있나? 한 가지 더. 만약 나랑 같은 팀 되면 내 것(승)도 잘



두산 마무리 이영찬은 2006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우승 멤버다. 당시 함께 우승을 일군 KIA 선발 양현종의 짓궂은 질문에도 솔직담백한 화법으로 응수하며 마무리 투수다운 강인한 기백을 보여줬다.

Q1. 용찬아, 광주 오면 연락한번 안하더라?
A1. 만날 친구가 한둘이야?...시간 내 볼게

Q2. 삭발을 해도 잘생겨 보이던데, 하하하
A2. 넌 꼭 뽀테 써...나는 생김대로 살려다

마무리해줄 자신이 있나?

“하하. 이 자신이, 내 보직이 마무리인데... 무조건 다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태훈이라고 해서 더 잘 해 주려고 하고 너라고 더 긴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운드에 올라가면 막기 급급해. 내 코가 석자다.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뭐, 아무래도 태훈이가 승리요전 채웠으면 더 신경이 쓰이긴 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못 막으면 우리 팀이 지는 게 더 걸려.”

-나도 신인 때 야구 잘 안되던 삭발을 자주 했어. 한 3~4번쯤은 한 것 같다. 그 때마다 선배들이 “왜 머리에 화풀이를 하냐?”고 하셨거든. 너도 삭발을

중중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야구가 잘 되나? 너 역시 삭발을 해도 잘 생겼더라. 하하하. “야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는다는 생각으로 자르지. 개인적으로 충고하는데 현종아, 너 삭발은 아니다. 안경도 뽀테를 써라. 난 얼굴을 머리나 안경테로 많이 가려야 좋아. 하하. 난 그냥 나 생김 대로 살려다.”

-야구 말고 사실 다른 게 더 궁금해. 우리가 한창 놀 나이잖아. 나도 신인 때 잠깐 ‘나쁜 길’에 들어섰다가 일찍 나왔거든. 물론 지금은 프로선수답게 몸관리를 잘 하고 있지.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가 늦바람이 들

었다던데... 일단, 이런 소문에 대해 인정하냐? 인정한다면 왜 그러는 거니?(웃음) “(이)질문에 이영찬은 발끈하며 기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양현종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시늉을 했다(아니, 전화 좀 해보세요. 물어보게. 현종아, 또 대체 나쁜 길이 뭐야, 나쁜 길이. 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더 궁금하다. (부모님이 보시면 오해를 한다며)이 질문은 패스.”

- (임)태훈이는 광주 오면 항상 나랑 만나고 가.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그런데 용찬이 너에게 전화하면 항상 바쁜

다고 하더라. (약간 서운한 듯) 너 여기 연구도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 거니? “초등학교 친구가 KIA에 있었잖아. 어렸을 때 옆동네 살기도 했고. 깨도 보고 후배도 좀 보고, 네가 그렇게 원하면 다음에 꼭 보러 간다. ㅋㅋ.”

-쿠바에서 열린 2006년 제22회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이었지. 당시 쿠바는 세계 최강이었잖아. 다들 이기려는 욕심도 없고, 사실상 쉬어가는 경기였는데... 난 네가 자진해서 선발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한국은 A조 예선리그 2차전에서 쿠바에 4-8로 패배)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랬던 거니? “당시 대표팀 맡고 있었던 광주 감독 하세환 감독님이 선수들을 집합시켜 놓고 ‘쿠바전 선발 누가 나갈래?’라고 하셨잖아. 그때 나랑 감독님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래서 그냥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 나도 사실 피하려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최강 쿠바 선수들은 내 생애 언제 다시 상대해보나.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 구중 선택이 잘못됐어. 쿠바 선수들이 힘이 좋으니까 직구 말고 변화구 위주로 던졌는데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 맞아나가더라고. 3회부터 열 받아서 무조건 직구로만 던졌더니 타자들이 못치는 거야. 처음부터 직구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지.”

- 원래 어릴 때는 명품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런데 넌 그때(2006세계청소년선수권) 공항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사더라.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거니, 아니면 쇼핑이 취미니? 여전히 쇼핑을 좋아하는 지도 궁금해. “난 그런 적 없는데... 너 왜 자꾸 말 지어내고 그래. 운동할 때 쓰는 선글라스 그거 사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쇼핑은 무슨, 돈이 있어야 쇼핑하지. 벗고만 안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내 한 달 용돈으로는 기름값 대는 것도 백백하다. 친구야.”

정리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 '릴레이 인터뷰'는 매주 월요일자에 연재됩니다.

“빅리거 도전, 투수보단 야수”...추신수의 힘!

앤서니 기자의 추신수스토리

찬호 “코리안 마이너 야수 증가”
맞대결 앞두고 화가에애한 대화

찬호 1이닝 무실점...추, 무안타



클리블랜드 추신수(28·사진)와 뉴욕 양키스 박찬호(37)는 29일(한국시간) 경기전 양키스타디움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이 낳은 두 스타는 무척 화가에애해 보였다. 둘은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한국의 젊은 야구 선수들에게 롤모델이나 다름없다. 박찬호는 1994년 메이저리그에 첫 등장했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80승을 올렸다. 야구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선수들에게 최고의 가이드였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 새로 나타난 스타다. 2005년 시애틀에서 메이저리그에 첫 선을 보인 후 주전을 꿰찬 건 2008년 시즌 말부터.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찬호는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전에는 한국 선수들이 오지 투수만 하려고 했다. 지금은 추신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추신수도 동의했다. “얼마 전까지는 마이너리그에 있는 한국 선수의 90%가 투수였지만 점차 바뀌고 있다”면서 “점점 더 많은 야수들이 빅리거 도전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메이저리그 엔트리에 올라 있는 한국 선수는 추신수와 박찬호 뿐이다. 한편 박찬호는 29일 8-2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1안타 2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부상 복귀 후 4연속경기 실점에서 벗어나는 호투. 방어율도 8.71에서 7.94로 낮췄다. 반면 추신수는 29일 4타수 무안타 1삼진, 30일 6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침묵해 타율은 0.286까지 떨어졌다. 29일에는 양키스가 8-2, 30일에는 클리블랜드가 13-11로 각각 승리. 박찬호와 추신수의 맞대결은 없었다.

앤서니 카스트로빈스는?
1년 내내 클리블랜드와 함께 하고 있는 MLB.com 소속 담당 기자다. 스토브리그와 스프링캠프부터 출발해 개막 후에는 홈·원정경기를 가리지 않고 클리블랜드의 162전개임을 모두 현장에서 취재하며 바로 곁에서 추신수를 지켜보고 있다.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 콤팩트 뉴스

김태균 4타수 1안타...이승엽 침묵
지바 롯데 김태균이 30일 지바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코하마와의 인터리그 홈경기에서 4번 1투수로 선발출장해 4타수 1안타를 쳤다. 26일 히로시마전 이후 3경기 만에 안타를 추가했고, 시즌 타율은 0.294가 됐다. 팀은 연장 11회 터진 사토자키 도모야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1-0으로 승리. 요미우리 이승엽은 세이부와의 원정경기에서 8번 1투수로 선발출장했지만 3연타석 삼진을 포함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타율은 0.176.

할라데이 퍼펙트 게임...ML 통산 20번째
필라델피아 로이 할라데이(33)가 메이저리그 통산 20번째 퍼펙트게임을 달성했다. 30일(한국시간) 플로리다와의 원정 경기에서 9이닝 동안 단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고 27타자를 잡아내 1-0 승리를 이끌었다. 삼진은

“이유 그라운드”...김동수 은퇴식
넥센 히어로즈 김동수 배터리 코치(사진)가 30일 목동 LG전에서 앞서 은퇴식을 치렀다. 1990년 LG에서 데뷔한 그는 삼성~SK~현대를 거친 뒤 지난해 넥센에서 플레잉코치로 활약하기까지 포수 최초로 20년간 현역 프로야구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1990년에 포수 최초 신인왕에 오른 김동수는 역대 포수 최다인 7차례 골든글러브 수상하는 등 통산 2039경기에 출장해 타율 0.263(5915타수 1556안타) 202홈런, 871타점을 기록했다.

11개. 오클랜드 델러스 브레든에 이은 시즌 2호로, 한 해에 퍼펙트게임이 2번 나온 건 1880년 이후 처음이다. 1-0 퍼펙트게임은 통산 6번째.

이대호-가르시아 부상, 선발 제외
롯데 이대호와 가르시아가 각각 29일 경기 도중 자신이 친 타구에 맞았던 발등과 복사뼈 부상 탓에 30일 SK전 선발에서 제외됐다. 대신 홍성흔이 롯데 이적 후 처음 4번타자로 출장했다.

KIA, 사상 첫 팀 2만 탈삼진 기록
KIA는 30일 광주 한화전에서 사상 첫 팀 2만 탈삼진을 기록했다. KIA 선발투수 윤석민은 이날 2회 1사 2루서 한화 이대수를 상대로 팀의 2만번째 탈삼진을 작성했다.

KIA 이현근 1군 말소...나지완 등록
KIA는 30일 최근 타격이 부진했던 내야수 이현근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외야수 나지완을 등록했다.